

# Essay on Veterinary History V.

## (중국의 전통 수의학)

천명선 / (주)동아시아인스 연구원

생명체를 작은 우주로 보고 큰 우주인 환경과 조화를 통해, 그리고 음과 양의 균형을 통해 건강과 질병 상태를 정의하는 전통 중국 의학은 독특한 체계로 발전되어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으며, 인도 의학과도 영향을 주고 받았다. 수의학 이론 역시 의학 체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인도 전통 의학과 마찬가지로 중국 전통의학도 '고대 의학'으로 분리하기가 힘들다. 이미 과거 속에 묻혀버린 전설이 아니라 문화로서 의학으로서 지금도 그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갑골문자에 새겨진 질병의 흔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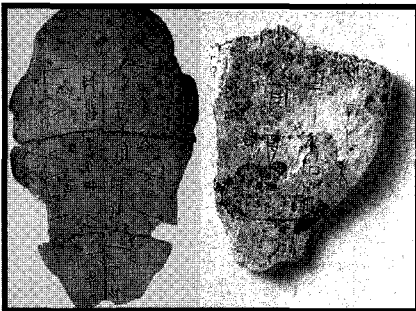


그림 1. 갑골문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중국 은나라(殷)에서는 거북이 등껍질(甲)이나 소의 견갑골(骨)에 중요한 결정이나 길흉을 묻는 질문을 쓰고 불에 구워 생긴 구멍을 보고 점을 쳤다(그림1). 갑골문자는 중국 하남성 지역의 한약방에서 약재로 쓰이는 '용골(龍骨)'에 글자모양이 새겨진 것을 우연히 발견함으로써 20세기 초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다. 현재 발견된 글자는 약 3000자 정도인데 그 중 한 절반이 해독되었다. 갑골에 새겨진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 중국인들의 질병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가 아픈데 어떤 재앙이 있겠는가?”

“문노니, 왕은 뼈가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목, 정수리, 눈, 귀, 코, 혀, 이, 콩팥, 팔꿈치, 무릎, 발, 발가락, 뼈 등 다양한 신체 부위의 질병들과 함께 실어증이나 정신병 증상, 회충 등 기생충에 대한 표현도 눈에 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도 전염병, 즉, 역(疫)에 대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오래 가겠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전형적인 고대 의학의 주술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당시의 의학이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이었다기 보다 종교의 힘을 빌어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전설과 만나는 고대 수의학



von den Driesch/Peters  
그림 2. 마사황(馬師皇)

언제부터 중국의학이 미신과 주술의 상태를 벗어나서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음양오행의 체계적인 ‘의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는 베일에 가려있다. 침구학과 본초학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상태로 역사 속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황제내경’은 전설 속의 황제(黃帝, 2697-2599 BC?)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후대의 중국 수의학 서적에서 황제와 사황(師皇)은 말의 질병에 관해 토론하는 화자로 등장한다. 사황은 말에 대한 전문가로 황제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데, 그 역시 전설 속의 인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그림2). 중국의학의 경험적 지식을 보여주는 분야는 본초학(本草學)이다. 전설 속의 황제인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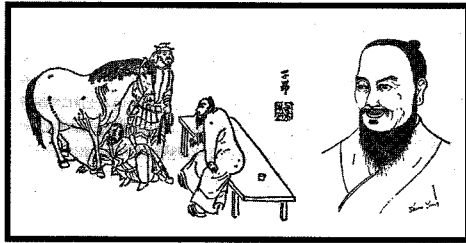
그림 3. 신농(神農)

농(神農)은 전설 속의 중국 태평성대를 다스렸던 삼황 중 한 사람으로 스스로에게 임상실험을 통해 약의 효능과 특성을 알아냈다고 한다(그림 3).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중국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인데, 실제로는 당시의 지식을 모아 1세기경 책으로 정리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 책은 각 365종의 본초들을 담고 있는데, 이중 피부 질병과 기생충 질병 등 3가지의 동물치료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 중국 수의학의 대가, 손양

중국 의학의 대명사 격인 화타가 있다면 수의학에는 손양(孫陽)이 있다(그림 4). 백락이라고

1 이는 황제내경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Sasazaki/ Shimizu  
그림 4. 말을 살피는 백락(伯樂)

불리는 이 인물은 춘추시대의 인물로 말을 보는데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훌륭한 사람에게 인정받을 뜻을 하는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고사성어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말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으나 쉽게 팔리지 않는다면 백락에게 한 번만 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백락이 지나가다가 말이 생각보다 좋은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돌아다보자, 그 말 값이 갑자기 열 배나 뛰었다고 한다. 이 고사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말을 잘 다루었고 말에 대한 침술에도 능했지만, 그가 직업적인 수의사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후대에 전해지는 마의학 서적은 그의 이름을 딴 경우가 종종 있다. 백락이 직접 그 책을 서술 했는지, 아니면 그의 명성을 이용하고 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후대의 저자가 책에 백락의 이름을 붙인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백락 침경(伯樂針經)' 등의 수의학 서적이 바로 그 예이다. 우리나라 14세기 마의학 서적인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에서 백락은 '방혈술'에 대해 설명하는 화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 수의(獸醫)의 기원

중국 역사에서 수의사라는 직업이 언급되는 것은 주(周)나라(BC 12세기경)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나라 관료 체계를 담고 있다는 '주례(周禮)'는 의학과 관련된 4개의 관직, 즉 황제와 황실의 음식을 관리하는 식의(食醫), 감염성 질병과 계절병을 다루는 질의(疾醫), 종기와 외상치료를 담당하는 양의(瘍醫)와 동물의 병을 돌보는 수의(獸醫)를 열거한다. 이다. '수의'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주례가 실제로는 한(漢)나라 때 저작된 것이라고는 해도 고대 중국에 '동물의 질병을 돌보는 수의'가 훨씬 오래 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관직을 설명한 것이라 실제 서민들의 생활에서 '수의'가 의료행위를 담당했는지는 알 수 없다.

## 비교해부학 지식 - 말은 담낭이 없다

중국 전통의학의 특성상 해부학이나 외과술이 발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의학에서 고대 중국인들의 해부학적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17세기 중국의 대표적인 마의학서인

‘원형료마집(元亨療馬集)’을 이서(李署)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마경언해(馬經諺解)<sup>2</sup> 첫 부분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동계(東溪)라는 사람이 곡천(谷川)에게 물기를

“말이 부모가 있느냐?”고 하니, 곡천이 대답했다.

“용이 낳았는데, 천지가 처음 생길 때 비로소 두 용이 동해 굴산(屈山)에 있으면서 산을 가리켜서 성(姓)을 삼으니, 하나의 이름은 굴강(屈強)이고, 또 하나는 굴녀자(屈女子)이니,

굴녀자는 나는 토끼를 낳고, 나는 토끼는 기린을 낳고, 기린이 말을 낳으니, 천황이 이름을 용구(龍駒)라 하였다. 후에 말이 사람을 물어서 잡아먹어 동중선(董仲仙)이란 이가 그 쓸개즙을 따 버리니, 말이 차는 것과 무는 것을 그치게 되어, 이름을 고쳐 말(馬)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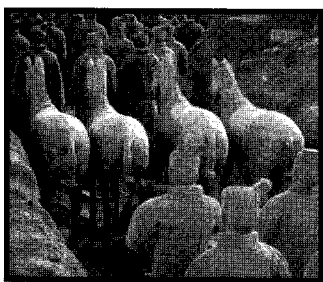


그림 5. 진시황 무덤에서 출토된 말의 모형

말은 중국 수의학은 물론 중국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동물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말에 담낭이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나라의 큰 제사에 제물로 쓰였던 말에 대해서는 도살 과정에서 해부학적 지식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5).

또한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 해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동물들의 내장기관이나 근육 등 기초적인 해부학적 지식을 터득했을 것이다. 다만, 수의학 서적을 만들거나, 수 의학을 지식으로 전수했던 사람들의 경우, 비록 이들이 수의사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이런 실제적인 지식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18세기 중

국 서대춘의 ‘의학원류론’의 수의론(獸醫論)에서 중국 전통 수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엿볼 수 있다. 사람의 치료와 비교하여 동물의 치료에 있어 특별히 주의 할 점을 설명해 놓았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동물을 치료할 때 알아야 할 매우 실질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동물의 질병이 생기는 주된 원인, 동물이 해부학, 생리학적으로 사람과 다른 점, 특별한 동물에만 걸리는 질병이 있다는 점, 각 동물마다 다른 약을 써야 한다는 점등 매우 체계적으로 들고 있어, 여기서 수의학이 이미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학문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금수(禽獸)의 질병은 칠정(七情)의 하나로 인해 비롯된다기 보다는 대개 풍(風), 한(寒)이나 부적절한 음식으로 인해 생겨난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과는 다르게 그 치법(治法)이 단순해 보일 수 있다. 비록 금수의 내장과 경락이 사람의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천지(天地)로부터 기혈

2 원형료마집은 중국의 유명한 수의사 형제, 유분형, 유분원 형제가 당시의 수의학 지식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마의학 서적이다. 이서의 마경언해는 원형료마집을 단순히 번역했다기 보다는 편역서라고 보는 편이 옳다. 실제 임상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론에 치우치거나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 책을 새로 엮었기 때문이다.



(氣血)을 받는 것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무릇 약을 쓰는 것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때와 대략 비슷하다. 다만 동물은 기(氣)가 거칠고 혈(血)이 탁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과는 다르다. 따라서 동물의 치료에 특별히 쓰이는 약이 있으니 사람을 치료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또한 질병 역시 어떤 한 동물에만 걸리는 질병이 있어 이런 질병을 다루는데 쓰이는 처방도 따로 있다. 이런 모든 면들을 살펴볼 때, 수의학은 대체적으로 인의와 비슷하다. 단지 쓰이는 약의 용량이 크고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천운(天運)과 시기(時氣)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많으니 약제를 더하고 덜하여 사람의 질병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그 질병의 병리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수의학과 의학의 기술은 그 상하를 논할 수 없이 동등하다...”

## 고대 중국의 애완동물

고대 중국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키웠으며 일찍부터 동물의 선택 교배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 페키니즈, 시추, 차우차우, 샤페이 등은 중국에서 유래된 견종이다. 또한 사람들은 고양이를 쥐를 잡는 영물이라 하여 귀하게 여겼고 고양이가 행운을 가져오며 고양이가 눈의 섬광이 악귀를 쫓아 준다고 믿었다. 금붕어, 잉어 등을 사육했고, 갖가지 애완 조류 뿐만 아니라 도마뱀이나 원숭이 같은 특이 동물도 애완동물로서 특별한 관심과 대우를 받은 것으로 짐작할 때, 애완동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역시 발달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전해지는 수의학 서적은 대개 말, 소, 낙타 등 대동물에 대한 것들뿐이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단지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약초와 침술이 애완동물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이다. **대 수**

### 참고서적

- A. von den Driesch, J. Peters: Geschichte der Tiermedizin, 2003, Schattauer, Stuttgart  
 R. H. Dunlop, D. J. Williams: Veterinary Medicine, An Illustrated History, 1996, Mosby, St. Louis  
 콜린 A. 로런 (김동광, 권복규 옮김): 세계과학문명사 1, 1999, 한길사, 서울  
 야마다 게이지(전상운, 이성규 옮김):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002, 사이언스북스, 서울  
 笹?龍雄, 清水英之助: 中國の獸醫と家畜針灸, 1987, 養賢堂, 東京  
 남도영: 마경언해, 2004, 한국마사회 박물관  
 P.U. Unschuld: Forgotten traditions of ancient Chinese medicine. 1990, Paradigm Publications, Brookline

